

01 교회소식

주 날개 밑 즐거워라~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변화되어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희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02 생명의 말씀

'가나안 정복사' 시리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신중히 행하며 오직 친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03 해외에서 온 편지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영혼들과 만나며 코로나19 속에서도 갖가지 성령의
역사로 활발한 선교를 하고 있는 인도 김상휘 목사의 서신.

04 간증

고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만민에 온 뒤 치료와 응답, 축복의 하나님을 만난 유은숙 권사와
류메리증성 관절염을 치료받은 인도 상미트라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927호 2020년 8월 3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합니다”

서민석 집사 (48세, 3대대 23교구)

신예배 때 '영적 장수'라는 설교를 듣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은 저는 지방 출장을 가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았고, 그러면서 은혜가 임해 충만함을 되찾았지요.

일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니 좋은 고객들을 만나게 되고, 한 주에 두세 건이던 계약이 25~30건으로 뛰어 물질의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2018년 건강 검진에서 왼쪽 가슴에 결절이 발견돼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겼는데, 2019년 2월은 사집회에서 이수진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은 뒤 치료가 되었습니다. 재검을 통해 “결절이 깨끗이 없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또 올

해 2월에는 교통사고 후,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는데 기도 중 성령의 불을 받고 회복돼 새털같이 가벼워지는 체험을 했지요.

큰아들은 올해 국가 장학금과 2학기 등 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체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장래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작은아들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정리를 하며 신앙생활이 너무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제단을 만나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니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1997년 큰 누님이 다니는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해 수련회에 참석해 기사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며 충만히 신앙생활 하던 중 주 안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믿음의 가정도 이루었지요. 2018년 후반기, 세계 영육 간에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쉬게 되고 짜증이 잦아지며 회사에서도 영업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첫날 송구영

“쌍둥이 아들이 청색증을 치료받아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모세 키뉴아 성도 (31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저의 쌍둥이 두 아들은 '청색증'을 앓아 호흡관으로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카올레 지역 1일 부흥성회 시, 정명호 목사님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로 치료돼 건강해졌지요. 이후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저는 불건전한 비디오회를 판매하는 사업을 정리하고, 모바일·컴퓨터 전문매장을 개업했는데 최근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임대료를 송금하고 보니 잘못된 계좌로 보낸 것입니다. 큰 액수라 걱정됐지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 계좌로 돈을 돌려 주겠다는 전화가 온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는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 2주간 3일 금식을 두 번하며 당회장님의 '육체의 결여' 10편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마음과 행동이 새롭게 변화되었으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화평한 가정을 이루



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안젤린 완지루)는 제가 만민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확인 차 교회에 왔다가 질서정연한 예배 모습과 은혜로운 설교에 감동을 받아 만민의 양떼가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에도 오디오 설교를 통해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삶의 변화를 체험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직장에서 많은 직원이 해고됐지만, 아내는 더욱 쓰임 받고 있지요.

제 여동생(빌라 완지루)은 만민에 온 뒤 성격이 올라 케냐 국가고시에서 1등급을 받고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머니(수잔 음바리)는 며느리의 고백과 저의 변화된 모습에 작년 말부터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기슴 통증과 알레르기 피부염을 치료받았으며, 만민교회를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행복해하시지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여호수아 10:12~14)

가나안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아이성까지 함락되자 가나안 지경에 거하던 여러 족속들은 두려워 떨면서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릅니다.

그 중 헛 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은 서로 동맹을 맺음으로 힘을 합해 싸울 것을 결의하지요. 한편, 살아남기 위해 몰래 이스라엘과 화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아이성을 점령한 후 예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진을 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낮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까지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수 8, 9장).

그들은 자신들이 심히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사는 족속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 곧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이나 출애굽 후 타민족을 정벌한 모든 소문을 듣고 화친을 위해 찾아왔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길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온 가나안 일곱 족속 중 기브온 땅에 거하던 히위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붙잡혀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신 7:1~2).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타락한 풍속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죄악에 물드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며 싸우고자 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과 화친해도 된다고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온 사람들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 가져온 떡에 곰팡이가 생겼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가 찢어졌으며, 옷과 신이 낡아 버렸다며 그 증거까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이들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수 9:12~15).

지난번 아이성을 칠 때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행했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사람의 말을 따르는 실수를 낳은 것입니다. 3일

후에야 그들이 기브온에 거하는 히위 족속인 줄 알았지만, 이미 화친을 맺은 뒤였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기브온 지역을 히위 족속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형국이 되고 말았지요.

비록 상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고는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말로 화친하였기에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나무패고 물 길는 자로서 섬기도록 합니다(수 9:27).

혹자는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니 약속을 파기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설령 상대가 속였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해 속임을 당한 것이므로 임의로 약속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기브온 사건이 주는 교훈

1)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맹세함으로 비록 고의적인 불순종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거민과 화친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성급하게 화친을 맺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여쭙어 보기만 했어도 사람의 말에 속아서 잘못된 맹세를 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직장이나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때로는 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좇아 고의적으로 속이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4) 하셨다고 무조건 상대에게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좇아 행함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것과 속아서 피해를 입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만 가지고 생각이 동원되면 약한 사람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므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큰 이익이 눈앞에 보인다면 더 쉽게 상대의 말을 믿어 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먼저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

님의 뜻을 깨달아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이 없는 선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므로 상대가 속이려 할 때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2)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 다윗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의 일로 인해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기근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에게 한 맹세를 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윗의 선대왕인 사울이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 맹세를 어기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보응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사울의 후손 일곱을 죽인 후에야 기근이 그쳤습니다.

사사기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승리를 주시면 집에 돌아갈 때 처음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입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무남독녀 외동딸이었지요. 결국 입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거는 성급하고 경솔한 서원을 함으로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서원을 어기고 딸을 바치지 않았다면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단의 송사를 받음으로 딸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의 권세가 큰 것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세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잠 18:21).

우리는 항상 입술을 삼가 조심함으로 결코 사단의 송사를 받을 만한 말을 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급하게 맹세하는 말뿐만 아니라 불평이나 원망, 혹은 부정적인 말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말을 비롯해 모든 무익한 말을 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 선한 말만 내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신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예배/찬,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예배/찬,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한 장구독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manminnews.com 070-6240-5609

우리는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3.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한 기적의 사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은 왕도(王都)와 같이 크고 웅장함도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브온조차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신속히 알려졌고, 그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욱이 기브온 지역의 저항이 없어짐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신속히 진군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에 기브온 주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연합군의 기세에 밀린 기브온 거민들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지원을 요청하지요(수 10:6).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지체하지 않고 한 밤 동안 신속히 이동하여 아모리 왕들을 급습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은 제대로 대항해 보지도 못한 채 이스라엘 군대에 패해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추격에 도망하던 아모리 족속이

벧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지요(수 10:11).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감탄도 잠시, 이스라엘은 아직 남아 있는 적군을 추격해야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달아나던 적군들이 숨기 쉬워지므로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싸움을 마쳐야 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해질 무렵이 다 되어 벌써 동편으로는 달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놀라운 믿음을 내보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수 10:12)

여호수아가 맹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보장하셔서 해와 달이 멈추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기만 한다면,

해와 달을 멈추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해가 멈춘 동안 적군을 진멸하고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다 죽인 이스라엘은 계속 전진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수 10:41~4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동원했을 때에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에는 해와 달을 머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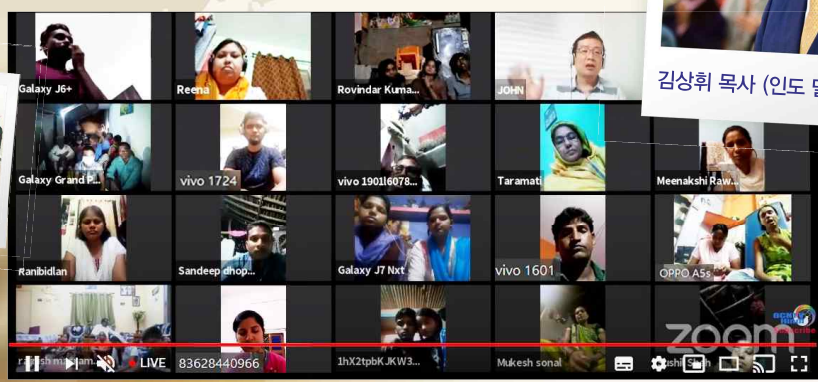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간다면 범사에 험푼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에서 온 편지

“비대면 선교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목사 (인도 메리만민교회)



▶ GCNTV HINDI

인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종교 모임은 물론,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방이나 타 지역 이동도 쉽지 않지요.

이 가운데 저희 메리만민교회에서는 비대면 선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ZOOM(화상 회의 및 모임이 가능한 앱)을 통해 예배나 심방을 하니 예전에는 먼 지역 성도들은 며칠 걸려야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손쉽게 만날 수 있어서 그 시간에 더 많은 영혼을 심방할 수 있게 되었지요. 또 그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성도들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메리만민교회는 서울 만민중앙교회 대예배 및 저녁예배를 동시 화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8시에

는 ZOOM을 통해 자체적으로 주일예배와 손수건 집회를 진행하고 있지요. 이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로 생방송되고 있으며,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과 기도 요청에도 응대해 성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교 후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제가 기도해 주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약한 영이 떠나 가족과 이웃들이 전도되고 두통, 출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된 것은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어 축복을 받아가는 등 행복한 간증들이 이어지고 있지요.

이로 인해 ZOOM에 접속하는 사람들과 'GCNTV HINDI' 시청자들이 늘

고 있고, 장결자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함으로 코로나와 상관없이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당회장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들이 당회장님 꿈을 통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의 문제를 해결 받아가고 있지요.

이러한 간증들을 접수하는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명 감당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이 없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형편이 되는대로 휴대폰을 지원하여 주변의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룹별 혹은 지역별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며, 일꾼들을 양육하

는 바ই블 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비롯해 요한계시록 강해, 성령의 열매, 천국 등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요.

이처럼 지역, 연령, 성별을 초월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출석과 신앙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어서 비대면으로 사역해야 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선교 사역에서는 더 좋은 환경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약한 영이 떠나며 각종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은숙 권사 (54세, 2대대 16교구)

건강한 몸이 돼 병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 모두 마찬가지이지요. 친정어머니(라영자 권사)도 무릎 통증, 오십견, 비루관 폐쇄증 등을 치료받으시고 82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으며 저는 어찌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하여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역장에서 조장으로, 조장에서 지역장으로 성장하면서 각각 열매를 내어 성지 순례를 세 번이나 다녀오는 축복도 받았지요. 2012년 2월에는 남편이 예전에 사업을 하다 진 빚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수하기 전에는 주인이 자주 바뀌는 잘 안 되는 식당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식당이 잘되니 그 많은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후반기부터는 교회에 힘이 되 고자 각종 헌금을 두 배로 드리며, 더욱더 구제할 곳을 찾아 구제하고 섬길 곳을 찾아 섬기기를 힘써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전보다 심일조가 배가 되는 축복이 임했고, 올해 초에는 수년 전에 팔려고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던 집이 매매되는 축복도 받았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너무 좋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넘치도록 영육 간에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만민에 와서 지난 30년의 제 삶은 지극히 평범한 것 같지만 사건·사고 없이 늘 보호받으며 행동하고 행복한, 소소하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날들이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잦은 유산과 불화로 무기력증, 우울증, 그리고 장 기능 약화 등을 겪으며 일상생활이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건네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 설교 테이프를 들으며 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뒤 환자기도를 받았는데, 즉시 치료되어 1990년 3월에 만민중앙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기도 생활을 하니 반복적으로 하던 유산이 멎고 큰아이를 무사히 출산하였습니다. 둘째 아이는 출산 전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고 무통분만하는 축복을 받았습니 다. 또한 저는 어릴 때부터 눈 질환이 심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곳에 온 뒤로는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이는 눈이 되었고 눈 통증도 사라졌지요. 장 기능도 좋아지고

“시공을 초월해 고질적인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치료받았어요” 상미트라 성도 (36세, 인도 우타 프라데시 주)

3~4년 전부터 제 무릎 관절에 통증이 시작되더니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러 병원들을 전전했는데 의사는 요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지요. 하루하루 진통제로 버티며 집안일도 못하고 누워있으니 가족은 힘들어했고 저는 살 소망조차 잃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척의 전도로 교회에 다녀보았지만, 잘 걷지를 못하니 결국 그마저도 나갈 수 없게 되었지요. 심령이 갈급해진 저는 기도라도 받고자 유튜브에서 검색하던 중, 델리만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저는 델리만민교회에 전화해 기도를 받고자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교회 일꾼 분은 한국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 사역이 담긴 ‘권능’ 비디오와 ‘십자가의 도’ 설교 파일을 보내 주셨지요. ‘권능’ 비디오를 통해 당회장님께서 단에서 기도해 주셨음에도 무수한 사람이 치료되는 권능의 현장을 목도하자 저 또한 기도 받으면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의 도’ 설교 시리즈를 열심히 들으며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기쁨으로 주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했지요. 그러자 제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해 12월부터는 델리만민교회 유튜브 채널인 ‘GCNTV HINDI’를 통해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만민중앙교회 이수진 목사님이 올해 1월에 은사집회를 인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 설교 시리즈를 다시 한번 들으며 사모함으로 은사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중 지난날에 지은 많은 죄가 떠올라 통회자복 하였지요. 그 뒤 1월 31일 금요일엔 은사집회 시 이수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감정, 혐기 등의 죄를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고 이어 기도를 받는데 그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온몸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 평소 부족 없이는 걷지 못했던 제가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떤 도움 없이도 똑바로 걷고 집안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은사예배를 세울 만민중앙교회와 NSG-6를 통해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15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시면 양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화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민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27 ☎01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칠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889-2332
- 진주순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층 3호 ☎055)852-3815, 010-5192-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로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신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3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9-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208,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산대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
- 서울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휴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매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